

노동신문 사·논설을 통해서 본 북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

현 인 애**

I. 들어가며

II. 사·논설을 통해 본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와 특징

III. 나오며

국문요약

노동신문 사·논설은 해당 시기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효율적인 자료이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명절 관련 노동신문 사·논설을 분석한 데 의하면 북한 당국의 여성담론은 초기에는 가정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지향했지만, 점차 전통적인 여성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북한 당국의 여성을 위한 정책은 남녀평등권 발포, 여성의 사회 진출과 그를 위한 국가적 조건 보장, 여성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가전제품 생산과 서비스업 확대로 발전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부터는 외면상으로는 이전 정책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퇴보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기부터는 체제 수호를 위한 여성 역할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여성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치적 요인으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는 소련의 정치적 영향이었으며 그 이후는 수령체제에 기반을 둔 수령의 여성관과 그에 기초한 정치적 역할이었다.

주제어: 북한, 북한 여성, 여성정책, 여성담론, 노동신문

I. 들어가며

지난 기간 북한학 분야에서는 여성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북한이 1947년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 여성의 사회적 진출 보장 등을 통해 여성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의 여성담

* 이 논문은 2014년도 세계북한학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충한 것이다. 논문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토론자분들과 심사자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론과 여성정책은 퇴보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정책, 여성담론의 내용, 변화 시기와 양상, 변화의 요인에 대한 평가는 각이하다. 이는 북한에 대한 자료 접근이 매우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북한 여성연구의 자료로 많이 이용된 것은 잡지 ‘조선여성’이다.¹ 그러나 북한의 공식적인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을 고찰하는 데서 ‘조선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노동신문이다. 북한은 당이 국기를 영도하는 사회주의국가로 여성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당이다. 북한 당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과 태도는 노동신문에 더 예민하게 반영된다. 그리고 한국의 도서관에는 상당한 분량의 노동신문이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는 노동신문에 게재된 여성명절 관련 사·논설을 통하여 북한의 공식적인 여성정책과 여성담론의 변화 내용과 양상을 확인하고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지난 기간 북한 여성연구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 그리고 ‘로동신문’² 비롯한 각종 신문, 잡지 ‘조선여성’, 『조선중앙년감』, 북한 교과서, 소설 등 다양한 북한 문헌을 이용해 왔다. 조사에 의하면 북한문헌 내용 분석을 위주로 진행한 연구는 단행본 1건, 석사논문 3건, 학술지논문 8건 정도이다. 그중 다수는 잡지 ‘조선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8건)고 그 외 교과서, 『김일성저작집』, 문학작품을 분석했다.³

노동신문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3건이다. 장하영·박경우는 창간호부터 1972년까지 수집 가능한 ‘로동신문’ 모든 기사 261,262개 제목을 요목별로 분류 분석하였다.⁴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제반봉건 혁명기 여성 기사는 1.60%를 차지했

¹ ‘조선여성’은 북한 유일의 여성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다.

² 논문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인용할 때에는 북한식 표기법에 준하여 ‘로동신문’으로, 그 외에는 노동신문으로 표기함.

³ 김병로 외, “북한의 여성교육과 여성상: 『교과서』와 『조선여성』에 나타난 여성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 (2000); 김선희, “『조선여성』지에 나타난 북한여성의 성 역할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5); 김인영, “북한 여성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교과서> 및 <조선여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8.); 박영자, “북한의 근대 여성주체의 형성, 1945~47: 『김일성저작집』과 『조선여성』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6집 (2004.6.);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조선여성』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8.);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1950년 이전과 1979년 이후 조선여성 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2005); 이미경,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조선여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8권 제2호 (2004); 임순희, 『『조선여성』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화연구』, 통권17호 (2007.6.).

⁴ 장하영, 박경규,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 국가 건설기부터 수령제 성립기까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 (2005.8.), pp. 383~416

지만, 전후 복구 및 반 종파 투쟁기는 0.52%, 자주노선 및 수령제 성립기에 여성 기사는 0.46%로 줄었다. 그리고 새로운 여성상을 부각하는 기사는 반제반봉건 혁명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자주노선 수립기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대신 김일성 관련 기사들이 증가했다. 이로부터 정권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할 때에는 노동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정권이 일정정도 안정되자 현실에서 필요한 여성, 주체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가정교육자로서의 여성이 부각되었다고 결론했다. 그리고 여성에 관한 기사가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다고 보았다.⁵

문장순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노동신문 사·논설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일 시대의 여성상을 밝혔다.⁶ 그는 사설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일 시대의 여성상을 국가공헌자로서의 여성, 혁명가로서의 여성, 사회기여자로서의 여성으로 규정하면서 경제난과 선군정치에 여성을 과잉 동원했다는 것을 밝혔다.

김석향·권효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노동신문에서 여성 관련 구호와 사설을 분석하고 표준이야기 유형을 추출했으며 그 유형에 기초하여 내용을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김정숙은 ‘투사-아내-어머니’로, 일반 여성은 ‘투사-장군님 모시는 여성-어머니’의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여성의 역할을 여성문제와 후대 보육교양의 문제로 이원화시켜 두 분야 중 하나를 특출하게 모범이 되도록 수행한 여성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당국의 여성담론은 수령을 결사 옹위하는 선군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사상교양의 한 방법으로 여성에게 강성대국건설 책임을 맡기는 노력동원을 정당화했다고 보았다. 북한 당국의 여성담론은 여성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여성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할 수도 없음을 확인했다.⁷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기간 노동신문을 다룬 연구는 해방 후-수령제 형성시기와 1995~2007년 기간에 국한되었으며 분석대상은 노동신문의 기사 제목과 여성 관련 구호, 사설이었다. 그리고 노동신문 사설 분석 연구의 경우 여성상을

⁵ 위의 글, pp. 383~416.

⁶ 문장순, “김정일 시대 여성인식: 1995년~2007년까지 ‘로동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 논총』, 제12권 제4호 (2007.12.), pp. 241~260.

⁷ 김석향·권혜진,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 당국의 여성담론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2009.12.), pp. 153~185.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기관지로 해방 후 1945년 11월 1일 ‘정로(正路)’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일보로 발간하고 있다. 모든 기관지는 발행 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지만, 노동신문은 그 어느 기관지보다 당의 정책을 정확히 대변한다.⁸ 그러므로 노동신문은 북한당국에 의해 기록된 북한역사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신문에 대한 지도·통제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노동신문사 주필은 당 대회에서 임명하며 노동신문사 기자들은 당중앙위원회 간부과에서 임면하고 당중앙위원회 부원(지도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노동신문은 처음에는 4면으로 발행하다가 6면으로 늘렸으며, 드물지만 8면으로 발행할 때도 있다. 면수는 적지만 대신 광고가 없다. 앞면으로 갈수록 중요한 글이며 제일 중요한 의의가 있는 글을 1면에 실는다. 신문의 글 형태로 사설, 논설, 기사가 있으며 때로 시나 노래도 실는다.

노동신문에서 당의 정책을 직접 대변하고 있는 것은 사설과 논설이다. 북한의 주장으로는 당보 사설은 ‘당의 지시서’로 매 시기 제시되는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알려주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방향과 과업, 당면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그 수행방도를 명백히 제시해주며 인민대중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호소하고 선동”한다.⁹

사설은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글이며 신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 제국내적으로 벌어지는 사회정치적문제들에 대한 당의 견해와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는데서도 당보의 사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동신문’이 당의 공식 적대변자라면 당보의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기사가 바로 사설입니다. 당의 입장을 천명하는 글의 종류와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떤 틀도 사설처럼 당의 견해와 입장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대변하지는 못합니다.¹⁰

김정일은 신문혁명, 사설혁명을 주창하고 매일 밤 노동신문 사·논설을 검토 수정하고 비준해주는 등 관심이 특별했다고 알려졌다.¹¹ 당보 사설은 지도자의 현지

⁸ 이는 김정일의 노작에서도 확인된다. “‘로동신문’은 당을 대변하며 당의 목소리를 제일먼저 울리며 출판보도선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김정일, “‘로동신문’ 기사를 당보의 특성에 맞게 잘 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348~349.

⁹ 위의 책, p. 358.

¹⁰ 위의 책, pp. 348~349.

¹¹ “나는 당보에서 사설혁명을 일으킬 때에 매일같이 밤을 밝히면서 로동신문사 기자들이 써올려 보내는 사설과 론설들을 보아주곤 하였습니다. 그때 글을 아주 잘 쓰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 보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신문의 1면에 실는다. 노동신문 논설은 사회·정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본질과 내용을 원리적인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밝히면서 일정한 견해와 주장을 내세우는 기사이다. 논설의 비중은 사실보다 낮으며 보통 신문의 2면 하단에 실는다.

북한에서 사실은 정치 사실, 경제 사실, 정세 사실, 기념 사실 등으로, 논설은 이론 논설, 정책 논설, 해설·경험 논설, 자료 논설, 기념 논설 등으로 구분한다. 기념 사·논설은 기념하는 문제와 사실의 내용을 밝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주는 동시에 해당 시기 그 문제와 관련하여 당이 강조하려는 사상 등을 밝힌다. 기념 사·논설은 주로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노작 발표일, 당과 국가의 중요 명절과 기념일, 그리고 국제적 명절이나 다른 나라 국경절, 혁명승리기념일, 당, 국가영도자들의 출생과 사망일 등과 같은 계기에 많이 게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 관련 사·논설 중에서 3·8 부녀절과 7·30 남녀평등권법령 발포기념일 사·논설만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북한의 여성 관련 기념일로는 3·8 국제부녀절과 남녀평등권법령 발포기념일, 여맹창립일, 김정숙, 강반석의 생일과 사망일, 어머니의 날이 있다. 이 중에서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은 3·8 국제부녀절과 7·30 남녀평등권법령 발포기념일 이다.

3·8 국제부녀절은 전 세계 근로 여성들의 국제적 명절로 3·8절이라고도 한다. 1910년 덴마크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 여성대회에서는 1909년 미국 시카고 여성 노동자들이 남녀평등권과 자유를 요구하여 파업을 시작한 3월 8일을 전 세계 근로 여성들의 명절로 정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3·8절을 여성의 명절로 기념해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정치적 의미를 초월하여 문화로 되고 있다. 북한주민들도 3·8절을 정치적 명절이기보다는 여성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3·8 국제부녀절은 ‘~5년,’ ‘~0년’이 정 주년이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1946년 7월 30일에 발포되었다. 북한은 이 법령을 수세기에 걸친 봉건적 압박과 굴욕에서 여성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준 참다운 민주주의적 법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남녀평등권법령 발포기념일을 쇠지 않는다. 그러나 당은 이 기념일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논설도 발표하고 기념집회도 조직한

내가 말을 한마디 하여도 그 의도를 인차 알아차리고 당의 의도에 맞게 글을 쓰곤 하였습니다. 나도 글을 많이 써보아서 알고있지만 글을 쓰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의 의도에 맞게 글은 쓰고 다루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일, “로동신문사 사업을 개선헌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73.

다. 남녀평등권법령 발포기념일은 ~6년 ~1년이 정주년이다.

북한의 유일한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일은 1945년 11월 18일이나 보통 기념하지 않으며 10주년, 20주년 등 10년을 단위로 기념 사설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숙, 강반석의 생일과 사망일에는 기념사논설과 기사를 신는 것을 정례화하고 있지만, 이 날들은 당의 유일사상체제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여성 문제를 고찰하기에는 적합지 않다.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면서 2012년 11월 16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했지만, 제정한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노동신문을 조사한 결과 1950년 이전의 3·8절 사설은 1건밖에 없었고 1950~1954년 기간은 일부만 소장하고 있었으며 1955년부터 현재까지는 전부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사설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3·8절과 7월 30일 게재된 노동신문 사·논설은 77건이며 그 중 3·8절 사설은 38건, 7월 30일 사·논설은 39건이다.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논설은 <표 1>과 같다.

<표 1> 노동신문 사·논설 제목 (1955~2014)

연도	날짜	기사 형태	제목
'50	3.8	사설	국제부녀절에 제하여
	7.30		6·25 전쟁으로 인해 게재 안함
'51	3.8	사설	소장된 신문 없음
	7.30	사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여성들의 애국적 투쟁
'52	3.8	사설	전세계 평화애호 여성들의 명절
	7.30	사설	오늘의 조선 여성들
'53	3.8		스탈린 사망(3.5)과 관련하여 사설 게재 안 함
	7.30	사설	조선여성들은 이렇게 싸워이겼다
'54	3.8		소장된 신문 없음
	7.30	사설	건설의 힘있는 역군
'55	3.8	사설	공화국여성들의 영예
	7.30	논설	경제건설과 여성들
'56	3.8	사설	평화 애호 여성들의 국제적 명절
	7.30	사설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10주년
'57	3.8	사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조선 여성들
'58	3.8	사설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다
	7.30	사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공화국 여성들

'59	3.8	사설	공화국 여성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량이다
'60	3.8	사설	영웅적 조선여성들에게 영광을
	7.30	논설	여성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믿음직한 역군이다
'61	3.8	사설	우리 나라 여성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다
	7.30	사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62	3.8	사설	여성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이며 자녀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자
'63	3.8	사설	여성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
'64	3.8	사설	여성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이며 어린이들의 교양자이다
'65	3.8	사설	우리 나라 여성들은 믿음직한 사회주의 건설자
'66	7.30	사설	여성들은 우리 혁명사업에서 거대한 힘
'67	7.30	논설	전체 여성들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자
'68	7.30	논설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모든 여성들이 튼튼히 준비하자
'69	7.30	논설	김일성동지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모든 여성들을 교양하자
'70	7.30	논설	수령의 참된 전사로 키우기 위하여 여성들의 혁명화를 더욱 다그치자
'71	7.30	사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기 위하여 여성들은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
'72	7.30	사설	모든 여성들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자
'73	3.8	사설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7.30	사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여성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위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74	3.8	사설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총진군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75	3.8	사설	전체 여성들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76	7.30	사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여성해방강령의 빛나는 승리
'80	3.8	사설	세계여성들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하는 명절
'85	3.8	사설	여성들의 국제적 명절
'90	3.8	사설	3·8국제부녀절 80돐
'95	7.30	사설	당의 령도따라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가자
	3.8	사설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활짝 피워나가자
'96	7.30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성문제해결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
	3.8	사설	조선여성운동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97	7.30	사설	여성들은 당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드는 참된 혁명가가 되자
	3.8	사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자
'98	7.30	사설	당의 령도따라 조선여성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99	3.8	사설	여성들은 내 조국의 강성부흥에 적극 이바지하자
	7.30	사설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떨치자
'00	3.8	사설	당의 위업에 충실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 기개를 떨치자
	7.30	사설	강성대국 건설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01	3.8	사설	새 세기 진군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자
	7.30	사설	부흥강국건설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자
'02	3.8	사설	여성들은 강성대국건설의 힘 있는 역량이다
	7.30	사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03	3.8	사설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7.30	사설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여성혁명가가 되자
'04	3.8	사설	우리 여성들은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역량
	7.30	사설	여성들은 선군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혁명가가 되자
'05	3.8	사설	오늘의 총진군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자
	7.30	사설	조국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자
'06	3.8	사설	여성들은 조국의 강성번영에 적극 이바지하자
	7.30	사설	여성들은 선군혁명총진군을 떠미는 힘있는 역량이다
'07	3.8	사설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7.30	사설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08	3.8	사설	여성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자
	7.30	사설	여성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힘있게 이바지하자
'09	3.8	사설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7.30	사설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10	3.8	사설	당의 령도따라 모든 여성들은 선군조선의 희망찬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7.30	사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11	3.8	사설	여성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가자
	7.30	사설	여성들은 오늘을 아름답게 추억하는 대고조시대의 선구자가 되자
'12	3.8	사설	여성들은 강성국가 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나가자
	7.30	사설	여성들은 강성국가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이다
'13	3.8	사설	여성들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가자
	7.30	사설	강성국가건설에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14	3.8	사설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7.30	사설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자

논문에서는 명절 관련 사·논설의 발표 빈도수를 분석했다. 노동신문의 여성문제에 관한 사·논설 게재 빈도나 분량 등은 북한 당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해당 시기 정책에서 여성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사·논설에서 주장하는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을 찾기 위해 사설 내용 분석을 했다. 이 글에서 여성담론이라고 함은 북한이 주장하는 여성문제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말한다. 여성정책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결정을 의미한다.

북한의 여성명절 기념 사설은 약간 차이는 있으나 보통 ① 명절의 유래와 의의, ② 여성운동 성과와 원인, 여성문제의 중요성, ③ 과업 제시의 구조로 되어있다. 논설은 이론적 분석이 위주로 되지만 구성에서 사설과 큰 차이가 없다. 북한 당국의 여성담론은 사·논설의 성과와 원인, 중요성, 과업 등에 포함되어 있다. 사설의 성과와 과업에서 강조하는 부문은 북한 당국이 바라는 여성의 역할이며 사설에서 지적되는 모범적인 여성, 따라 배워야 할 인물은 북한 당국이 바라는 여성상이다. 사설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남녀평등, 여성해방에 관한 이론과 여성상과 같은 여성담론과 그 변화를 고찰했다. 다음으로 북한 당국이 여성들을 위해 실제로 실시한 정책의 내용, 그 변화 과정을 추적했다. 그리고 사설의 맥락에 대한 분석과 당시 사회·역사적 환경 이해에 도움으로 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담론과 정책을 규정하는 요인을 찾았다.

많은 경우 북한의 공식적인 글은 주민을 교양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미화하므로 사설의 내용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구 뒤에 숨어있는 실제적인 현실과 주장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II. 사·논설을 통해 본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의 변화와 특징

1. 사·논설에서 나타난 시기별 여성담론과 여성정책

1950년부터 2014년까지 3월 8일 국제부녀절(이하 3·8절), 7월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기념일 관련 노동신문 사·논설의 게재 여부는 <표 2>와 같다.

<표 2> 3·8, 7·30 사·논설 게재 여부

※ ○: 사실 게재, ★: 논설 게재

년도	발표일		년도	발표일		년도	발표일		년도	발표일	
	3.8	7.30		3.8	7.30		3.8	7.30		3.8	7.30
1950	○	6·25 전쟁	1967		★	1984			2001	○	○
1951	?	○	1968		★	1985	○		2002	○	○
1952	○	○ ★	1969		★	1986			2003	○	○
1953	스탈린 사망	○	1970		○	1987			2004	○	○
1954	?	○	1971		○	1988			2005	○	○
1955	○	★	1972		○	1989			2006	○	○
1956	○	○	1973	○	○	1990	○		2007	○	○
1957	○		1974	○		1991			2008	○	○
1958	○	○	1975	○		1992			2009	○	○
1959	○		1976		○	1993			2010	○	○
1960	○	★	1977			1994			2011	○	○
1961	○	○	1978			1995		○	2012	○	○
1962	○		1979			1996	○	○	2013	○	○
1963	○		1980	○		1997	○	○	2014	○	○
1964	○		1981			1998	○	○			
1965	○		1982			1999	○	○			
1966		○	1983			2000	○	○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명절 관련 사·논설의 게재 빈도는 높은 기간과 낮은 기간, 그리고 기념한 명절 등에서 확연하게 구분된다. 북한 당국은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성문제가 국가정책에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면 주민들에게 지시, 호소하기 위해서 사·논설을 게재한다. 노선과 정책은 과장할 수 있지만 사·논설 게재 유무를 조절하거나 과장할 수 없다. 사·논설의 게재 빈도는 북한 당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여부와 정책변화를 표현한다. 표에 의하면 1965년까지는 3·8절 사실을 매해 게재했지만 1966년부터는 7·30 남녀평등권법령 발표기념일 사실을 게재했다. 그리고 1973년부터 3·8절 사실을 게재하기 시작했으나 1975년부터 1994년까지는 정 주년에만 발표했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다시 3·8절과 남녀평등권법령 발표기념일에 사실을 빠짐없이 게재하고 있다. 사실 빈도에

따라 ① 1950~1965년, ② 1966~1994년, ③ 1995~2004년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내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 1950~1965년

(1) 사설 발표 빈도

이 기간은 1953년(3·5 스탈린 사망)을 제외하고는 3·8절 기념 사설을 빠짐없이 발표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1951년과 1954년은 소장된 신문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발표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 발표기념 일에는 사·논설 발표 유무가 일정치 않는데 후기로 가면서 그 빈도가 낮아졌다.

이 기간 내에서 발표 빈도수에서 1954년과 1961년을 기점으로 시기별 차이가 나타난다. 1954년까지는 7·30 사설을 빠짐없이 게재했고 1952년에는 논설까지 게재했다. 그러나 1955년부터 1961년 기간에는 7·30 사·논설을 게재하지 않거나 사설 대신 논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1962년부터 1965년 기간에는 남녀평등권법령 발표기념일에 사·논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발표 빈도가 점차 드물어졌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약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설 내용

이 시기 사·논설에서는 보통 성과는 ① 경제 ② 정치 ③ 문화예술 ④ 조국통일의 순으로 서술하였는데 때로는 정치가 앞에 서술되기도 했다. 보통 성과는 숫자를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는 6·25 전쟁과 관련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여성들의 투쟁 특히 전선 원호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이 강조되었다. 1954년부터 1957년까지는 전후복구 건설을 위한 노력이, 1958년부터는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이 강조되었다.

성과에 대한 서술이 초기에는 매우 구체적이었으나 점차 일반적인 문구로 대체되고 줄어들었으며 원인 서술이 늘어났다. 1950년대 전반기에는 소련군대에 의해 해방된 후 여성들이 경제·문화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가 사·논설의 1/2~2/3 분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점차 여성의 성과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1965년에는 1/5로 줄었다.

그리고 1950년대 전반기에는 성과의 원인이 지적되지 않았으나, 1956년 3·8절 사설에서 당과 인민정권의 올바른 시책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상승했다

는 것을 1문장 정도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여성평등을 위하여서는 법률상 평등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평등을 실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레닌의 교시”에 근거하여 여성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주장했다.¹² 1960년 3월 8일 논설에서부터는 김일성을 선두로 한 “항일빨치산의 여성운동 전통”을 포함하여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까지 성공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문이 3~4문장으로 늘었다.

사·논설의 과업부문에서는 항상 여성들의 직장진출과 경제 분야에서 혁신이 첫 번째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1956년부터 여성의 문화 사상 수준 제고를 요구하는 부문이 늘어났고 봉건적 잔재, 가정에만 안주하려는 생각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¹³ 1950년대 사상교양 내용으로 강조한 것은 계급교양과 애국주의교양이었으나 1960~1965년에는 정치교양의 내용이 당정책교양 공산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점차 늘어났다. 1955년까지는 아동의 교육과 고아 돌보기만이 과업으로 제기되었으나 1956년 3·8절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근면하고 소박한 아름다운 품성을 계속 발양하여 가정 및 사회의 문화적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으며 특히 1958년 7월 30일 사설에서는 여성들의 전통적 역할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여성들로 하여금 로동 생활에서, 사회공중생활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을 체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우리나라 여성들은 고대로부터 레질이 밝고 언어행동이 단정하며 로동에서 근면하며 애국적 열정에 불탔다. 이러한 미풍을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주의시대의 여성답게 일하며 생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마을 거리와 직장에서 위생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특히 농촌의 문화적 건설을 위하여 농촌여성들이 주택과 마을 부엌과 우물, 등 모든 시설을 위생적으로 개조하며 생활을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꾸림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¹⁴

1965년 3월 8일에는 여성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물자소비기준을 계통적으로 낮추며 전기와 열관리를 잘하여 한 오리의 실, 한 덩어리의 석탄이라도 더 많이 절약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직장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역할, 즉 절약운동의 담당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첨부하였다.

¹² 『로동신문』, 1957년 3월 8일 사설.

¹³ 『로동신문』, 1956년 3월 8일 사설.

¹⁴ 『로동신문』, 1958년 7월 30일 사설.

사실에 등장한 모범적 여성은 6·25 전쟁 시기 공화국영웅 조옥희, 리수덕, 리순임, 국신복, 태선희 박춘월, 노력영웅 당운실('52.3.8.), 모범농민 김락희, 유만옥('52.7.30.), 김학실, 고영숙('53.7.30.)이었고 전후에는 직포공 고영숙, 주병선, 벽돌공 김련홍('54.7.30.), 직포공 강정순, 한수엽, 박연봉, 홍은주, 기중기 운전공 정신애, 혼합기운전공 리순복('55.7.30.), 직포공 강봉옥, 관리위원장 김락희, 한후방녀('57.3.8.)이다. 6·25 전쟁 시기는 전선과 후방에서 활약한 여성이, 전후에는 공장과 농촌의 혁신자가 등장했다. 이는 1950년대 북한 당국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강조했으며 특히 생산 현장에서 일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부터 개별적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줄어 1회만 이름이 게재되었는데 김학실, 이신자, 김수복은 붉은 공산주의 교양자('62.3.8.)였다.¹⁵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시책으로 언급된 것은 전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모성과 아동을 보호하며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생활에서의 적극적인 참가를 보장('56.3.8.), 교육·문화·보건·상업유통부문에 여성노력 진출을 위한 조건을 보장, 애국 열사가족과 후방가족을 간부로 키우며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58.3.8.), 산전·산후휴가 보장, 여성 노동 보호('59.3.8.), 56년부터 59년 사이에 탁아소 36배 유치원 20배로 증가('60.7.30.)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1961~1965년의 기간 사실에서 언급한 당과 수령의 시책은 앞의 것을 다시 반복했을 뿐 새로운 것은 없었다.

나. 1966~1994년

(1) 사실발표 빈도

이 시기는 여성명절 관련 사·논설 발표 횟수, 게재한 기념일이 일정치 않으며 발표 빈도가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가진다. 노동신문에서는 1966년부터 3·8절이 아니라 남녀평등권법령 발표기념일에 사·논설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북한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이다. 이 시기부터 기념 사실은 논설로 바뀌었다. 북한은 당시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을 시도하면서 극단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다. 1967년 5·25 당중앙위원회 4

¹⁵ 김학실은 평양 제사공장에서 작업반노동자들, 특히 전쟁고아들을 친언니처럼 돌보아 주어 생활에 안착하고 생산에서 혁신하도록 이끌어준 교양자로 평가하는 여성이다. 이신자는 농촌에서 뒤떨어진 농민개조에 앞장 선 선전원이다. 김수복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하는 데 모범으로 내세운 교육자다.

기 15차 전원회의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사상으로서는 부르주아 수정주의 사상, 봉건유교 사상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유학생, 인텔리 숙청을 진행했고 책들을 회수·삭제하는 등 낡은 사상 여독을 뿌리 뽑기 위한 운동을 극좌적으로 벌였다. 그로 인해 명절을 쇠는 것도 조정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본다. 즉 3·8절은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민주여성연맹이 제정한 명절이었다. 소련을 수정주의로 비판하던 나머지 3·8절까지도 명절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 극단적인 반수정주의 투쟁이 가라앉기 시작하던 1973년부터는 다시 3·8절을 기념하기 시작하고 사설 횡수가 조금 증가했다.

그러나 1975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어 5년을 단위로 정 주년에만 기념 사설을 발표했다. 남녀평등권법령 발표기념일 사설은 1976년 이후로 더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여성 관련 사·논설 빈도가 가장 낮은 기간에 속한다. 이 시기 북한 당국은 여성문제를 거의 외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설 내용

이 시기 사·논설은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에 의한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승리의 역사와 그로 인한 여성문제의 빛나는 해결에 대한 언급이 전 내용의 1/2~2/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의 성과는 한두 문단으로 요약되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은 글도 있다. 1974년 사설에서는 여성들이 거둔 성과가 다음의 한 문장에 요약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 여성들속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박사, 교수, 기사, 전문가 등 수만, 수십만의 인민의 대표와 재능있는 일꾼들이 배출되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정력과 슬기를 깡그리 바쳐 일하고 있다.¹⁶

여성들의 노력을 대신하여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당시까지 수령이 여성운동을 현명하게 영도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부풀려서 기록되었다.

여성해방에 관한 이론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여성해방론에 기초한 것이지만 김일성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방침이라고 주장하는 3대혁명 사상에 맞추었다. 사설에서는 “여성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혁명을 힘 있게 벌려 여

¹⁶ 『로동신문』, 1974년 3월 8일 사설.

성들을 힘든 노동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벌려 모든 여성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이에 따라 1967년부터 사설에서 여성들에게 제시한 과업의 차례가 바뀌었다. 여성의 경제문화 건설에서 혁신에 대한 주문이 뒤로 밀리고 첫 번째 과업으로서 수령께 충실한 전사가 될 것을 요구했다. 1967년 7월 30일 논설 제목은 “전체 여성들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자”이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제목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그를 위해 여성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생활을 강화할 것이 강조되었다. 그다음에 경제문화 분야에서 혁신을 주문했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내용은 1960년 전반기에 언급한 것과 비슷했다.

그리고 1968년부터 1994년까지 사설에는 개별적 여성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이 여성운동에 쌓아올린 업적과 그의 품성을 본받아야 한다고 모든 사·논설에서 강조하고 있다. 1990년 사설에서는 강반석과 함께 김정숙의 업적을 내세웠다.

모든 여성들은 강반석녀사의 고매한 사상과 혁명가적 품성을 거울삼아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의 혁명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 도우셨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키우셨으며 그리고 자신께서 조국의 광복과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위해 전생애를 바치신 여성 혁명가이시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다. 실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은 혁명하는 남편을 어떻게 도우며 자제들을 어떻게 키우며 시부모는 어떻게 공대하고 가정은 어떻게 혁명화해야 하는가를 우리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불멸의 귀감이다.¹⁸

당과 수령이 여성들에게 돌려준 배려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가정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병동, 후생시설 건설('66.7.30.)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 노동시간 6시간으로 단축('68.7.30.), 가족식당, 식료상점, 세탁소, 의복수리소 확장('69.7.30.), 여성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산업공장, 분공장, 가내작업반 조직, 정규 및 통신을 통한 학습조건 보장 ('70.7.30.), 여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해 가전제품 보급에 관한 3대기술혁명 과업 제시('71.7.30.)다. 그 이후 시기부터는 이 내용이 다시 강조될 뿐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없다.

¹⁷ 『로동신문』, 1973년 7월 30일 사설.

¹⁸ 『로동신문』, 1969년 7월 30일 논설.

특히 76년 이후 80년, 85년, 90년 3·8절에 발표된 사설은 기념일의 의의만 강조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사설을 채워서 분량도 적고 여맹조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사설 발표 빈도와 내용을 보면 이 시기는 1966~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시기와 1975~1994년 김정일 후계체제 시기로 구분된다. 1966~1976년 기간에는 이전보다는 약화하였으나 여성문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이 여전히 높았고 특히 1970년부터 1973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여성문제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시된 기간이다. 그러나 1975년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기간은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매우 약화하였다.

가. 1995~2014년

(1) 사설빈도

1995~2014년은 기념 사설 빈도가 가장 많은 기간이다. 특히 1995년 7월 30일 사설은 노동신문 1면 절반 넘는 분량으로 편집했다. 이후부터 노동신문은 3·8절과 7·30일 기념 사설을 게재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2) 사설내용

사설의 구조는 이전과 유사하나 여성운동에 기여한 김일성의 업적 다음에 김정일의 업적이 첨부되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2011년부터 김정은의 업적이 첨부되고 분량이 늘고 있다. 특히 1976년 이후 처음 발표된 1995년 7월 30일 사설에서 여성을 “충성의 꽃, 나라의 꽃, 사회의 꽃”에 비유하면서 여성들의 노고를 언급한 데 이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해서 여성들을 치하하고 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사회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다. 여성들은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우리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고 있는데는 여성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 있다. 우리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높이 발휘되어온 조선여성의 고유한 미덕을 더욱 높이 발양해가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혁명동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더없는 영예로 여기고 있다.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한 가정식구가 되어 보살펴주는 우리 여성들의 공산주의적 미풍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자량으로 되고 있다.¹⁹

이 시기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장했던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는 드물게 인용하고 있으며 당의 영도에 충성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는데 나서는 것이 여성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선여성운동의 본질에 관한 언급은 여성문제에 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시기 조선여성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여성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는 충성의 운동이며 내 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 여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²⁰

여성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델도 변했다. 강반석과 함께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을 “혁명의 수령을 결사옹위한 여성혁명가의 최고 귀감”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다.²¹ 한편 일반 여성들을 다시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1995년 7월 30일 사설에서 안영애, 신포향, 태성할머니를 언급했고 2000년 3월 8일 사설에서 정성옥, 박옥희, 현영라, 엄복순이 거론되었으며 그 이후 최희숙 서혜숙, 주복순 등 개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²²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든 여성들이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여성교통 지휘원 이경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역시 수령 결사 옹위의 모범으로 소개했다.²³

¹⁹ 『로동신문』, 1998년 7월 30일 사설.

²⁰ 『로동신문』, 1995년 7월 30일 사설.

²¹ 『로동신문』, 1995년 7월 30일 사설.

²² 박옥희는 ‘고난의 행군’기에 부모 잃은 어린이 33명을 스스로 맡아 키우고, 이들 중 15명을 양육하여 군대에 보냈음. 현영라는 과학원 유색금속연구소 연구사(박사)로 재직하면서 음성녹음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금속 레코드판을 발명함. 서혜숙은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3모작 농법을 실현한 농업전문가임. 엄복순은 군관인 남편과 두 딸이 병사로 복무, 두 딸의 복무 지가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인 해안포중대였고 김정일이 이 해안포중대를 현지지도 나갔다가 직접 “동무네는 혁명적 군인가정의 창시자”라고 치하함. 정성옥은 1999년도 제7회 세계육상선수권 마라톤을 제패한 육상선수임. 주복순은 집 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워 인민군대와 공장에 보낸 만포방사공장 지배인임. 신포향은 6·25 전쟁 시기 낙원기계공장 주물직장 노동자로 김일성이 전후복구 건설을 걱정할 때 괜찮다고 위로한 당원임. 안영애는 6·25 전쟁 시기 군대 간호사로 폭격 속에서 부상자들을 구원하다가 숨지면서 당증을 당중앙위원회에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남긴 당원의 모범으로 내세우는 인물임. 최희숙은 일제강점시기 항일빨치산으로 일민군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으면서 끝까지 굴하지 않은 여성혁명가임.

²³ 북한에서는 교통경찰을 교통지휘원이라고 함. 그런데 이경심의 공로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있어 많은 추측성 이야기가 떠돌고 있음.

사설에서 제시하는 과업도 변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 대신 당의 영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95년 사설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의 비참한 현실에서 교훈을 찾고 “오직 위대한 수령을 신념의 기둥으로 믿고 역세계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분야는 대부분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과업으로 대처하는 대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사설은 여성들이 사회주의 대가정을 꾸리는데 참여하며 영예 군인, 부모 없는 아이들, 돌볼 가족이 없는 늙은이들을 돌보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선군정치를 받들기 위해 가정을 총대가정으로 만들며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그들을 잘 키워서 군대에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면서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막을 것을 과업에 포함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수령의 배려로서 개별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평양산원 건설('95.7.30.), 세쌍둥이를 위해 비행기를 보내 줌('00.3.8.), 여성병사들을 위해 약 크림을 보내주고 산모를 위해 꿀을 보내줌, 옷차림을 개선하도록 함('02.3.8.), 여성 명절에 함께 경축공연을 봄('08.7.30.)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은 게재된 것이 없다. 김정은의 여성 관련 업적을 서술한 것도 이와 유사한데 여성들을 위한 ‘희한한 음악회’ 마련, 어머니날 제정('13.3.8.), 제4차 어머니대회 개최와 기념사진 촬영('13.7.30.),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김정숙방직공장 기숙사를 지어준 것('14.7.30.)이다.

2. 북한의 여성담론 여성정책 변화

가. 변화 시기 구분

노동신문 사·논설의 발표 빈도와 내용을 분석한 데 의하면 북한의 여성담론 여성정책의 변화 시기는 사·논설의 발표 빈도에 따르는 구분과 일치했다. 변화 시기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었다. 1단계는 1950~1965년, 2단계는 1966~1994년, 3단계는 1996~2014년이다. 그리고 더 세분화하여, 2단계는 ① 1966~1974년과 ② 1975~1994년으로, 3단계는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1단계(1950~1965)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여성해방이론에 기초하여 여성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였다. 1단계는 ① 1950~1959년과 ② 1960~1965년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1950~1959년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여성담론과 정책이 충실하던 시기이며 1960~1965년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탈피하면서 북한식 여성담론과

정책을 모색·도입하던 시기다.

2단계(1966~1994)는 북한식 여성담론인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이론을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한 정책을 실시한 시기였다. 2단계는 ① 1966~1974년과 ② 1975~1994년으로 구분되는데, 1966~1974년은 상대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지도부의 관심이 증가한 시기며 1975~1994년은 지도부의 관심이 매우 저조해진 시기다.

3단계(1996~2014)는 여성들이 여성문제 해결이 아니라 체제수호에 나설 것을 직접 요구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김정일이 통치한 시기와 김정애가 통치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여성담론의 변화

북한의 여성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여성담론에서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론 그리고 체제 수호 담론으로 변화해왔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여성담론은 남녀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계급구조에 있으므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며 남녀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 경제 및 사회생활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부장적인 내용이 점차 강화되었지만,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여성담론의 기초를 유지했다.

1960년대 중반 북한은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론을 들고 나왔다. 그에 의하면 여성문제의 중국적 해결은 여성의 민족적, 사회 계급적 해방, 남성과 동등한 권리 부여, 여성의 가정일 부담 감소만으로 부족하다. 여성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문화지식수준을 높여야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 그를 위해서 여성을 혁명화·노동계급화 해야 한다.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여성이론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는 본질에서 여성을 수령의 전사로 만드는 것이었고 여성에 대한 조직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에서는 여성을 해방할 책임이 국가에 있었지만, 혁명화·노동계급화 이론에서는 여성 스스로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여성문제 해결의 방도로 되었다. 당과 수령은 여성에게 끝없는 시혜를 베푸는 어버이로 묘사되었을 뿐 책임이나 과실을 물을 수 없었다. 김일성의 지배체계가 확립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의 담당자로서의 여성은 수령의 영도 하에서만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는

피동적 여성으로 바뀌었다.

1995년 이후 발표된 노동신문 사·논설에서는 여성문제에 관한 새로운 담론을 찾을 수 없다.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조건 마련,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체제 수호 담론이다. 여성의 운명은 수령과 당 조국의 운명에 의존하므로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령에게 충실하고 선군노선을 받들며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²⁴ 이는 여성담론이라기보다는 체제수호담론이다.

한편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여성상도 변화해왔다. 신문사설에서 모범으로 내세우는 여성들을 보면 1950~1965년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소련과 같은 “혁신자-어머니”였다. 그러나 1966~1994년은 강반석, 김정숙과 같은 “수령을 받들어 모신 여성”으로 변했다. 1995년 이후 내세우는 여성은 “수령을 결사 옹위”하는 여성, 당의 영도에 충실한 “선군 시대 여성혁명가”이며 가정과 사회를 스스로 책임지는 “헌신적인 여성”이다.

북한의 여성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여성해방이론을 유지할 때 가장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여성담론은 발전한 것이 아니라 퇴보했다.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 담론은 여성해방을 여성 스스로 의식을 개변하되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여성문제 해결의 담당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부인했고 여성담론의 후퇴를 가져왔다. 그리고 1995년 이후부터는 여성담론보다는 체제 수호담론을 강조하고 있다.

다. 여성정책의 변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최대한 부각해야 하는 북한 신문의 사명으로 인해 사설에서는 그 시기 국가가 여성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빠짐없이 언급되게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혜를 게재한다. 그러므로 사설에는 북한 당국이 여성을 위해 실시한 실질적 정책이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철폐함으로써 소유권문제에서 남녀차별은 근원적으로 없어졌다.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와 국영경제의 확대에 따른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며 그를 보장하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을 많이 건설했다. 그리고 교

²⁴ 『로동신문』, 1998년 7월 30일 사설.

육, 문화, 보건 상업유통 분야의 남성노력을 여성노력으로 바꾸는 정책을 폈다. 한편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산전·산후휴가 도입, 모성노동보호 등과 같은 국가정책을 시행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일층 강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이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노력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었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확대, 가전 제품 생산 공급, 가정일과 관련한 서비스업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는 체제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와 여성들의 사회적 가정적 역할이 매우 절실했다. 이 시기 지도부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꽃으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는 여성의 역할 제고를 통해 경제 사회적 난관을 극복하며 여성의 일탈을 막고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통제 정책이 강화되었다.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외에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의 일회성 시혜가 강조되고 있다.

3. 북한의 여성담론·여성정책은 정치에 종속되는 하위담론

노동신문의 여성명절 관련 사·논설에서 주장하는 여성담론과 정책은 북한의 정치적 변화와 일치하게 변화했다. 북한의 정치적 변화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립, 김정일의 등장, 김정은의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 관련 사·논설도 이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논설의 제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957년부터 1965년까지 제목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주의 건설자”, 1967년부터 1972년까지 제목에는 모두 “수령계 충직한 혁명전사”, 그리고 2002~2007년은 “선군”이, 그 이후는 “강성대국, 강성국가, 조국” 등 국가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 제목을 보고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3·8절 기념 사설에는 “인민군대 경비대 및 보안대군 무자 가족원호사업과 조국보위후원 사업을 열성적으로 전개하며 남반부 인민유격대에 물심량면의 성원을 보내”라는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6·25 전쟁 기간에는 전선을 탄원하며 후방에서 남자들을 대신하여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지으며 전선을 원호할 데 대한 과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사

회주의적 개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통해 경제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여성해방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 노선도 1970년대 김일성이 내놓은 온 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노선 실현에 여성도 동원하도록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여성담론이 정치에 종속되는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여성들을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를 받들어 나가라는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여성문제는 체제 유지 정책에 종속되는 하위 문제일 뿐이다.

북한의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이 북한정치 담론에 종속되는 경향은 여성담론과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해방 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여성명절 관련 사·논설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해방 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를 지향하면서 여성담론은 바뀌기 시작했는데 변화된 내용은 여성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노선 집행에 종속되었다.

가. 1950년대 북한의 여성담론 여성정책과 소련의 정치적 영향

1950년대 노동신문 사·논설 발표 횟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 정책에서 여성 문제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는데 이는 소련과의 관계 변화와 거의 일치한다.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에서 개인숭배 반대 운동이 격화되고 그 영향으로 김일성 숭배 경향에 대한 소련파와 연안파의 비판이 강화되자 김일성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파청산운동을 시작했으며 그를 위한 담론으로 사상에서 주체 확립을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적인 대외관계에서 소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당시 소련과의 관계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것은 8·15 해방 기념행사이다.

<표 3> 8·15 기념행사 진행과 노동신문 여성 관련 사·논설 게재 횟수

연도	경축대회/열병식/연회 개최 상황	경축대회장소 / 연설자	경축대회 표제	사·논설 연평균 발표 횟수
1950~1952	경축대회/연회	평양/김일성	소베트군대에 의한 해방	1.67
1953~1959	경축대회/열병식/연회	평양/부수상	"	1.55
1960	경축대회/열병식/연회	평양/김일성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1.28
1961	경축대회 /연회	평양/부수상	"	
1962	"	"	8·15 해방	
1963	경축대회/열병식/연회	혜산/부수상	"	
1964	연회	없음	"	
1965	경축대회/열병식/연회	원산/부수상	"	
1966	없음	없음	"	

출처: 노동신문에 기초하여 작성

<표 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8·15 명절 기념행사 수준은 ① 해방 후~1952년, ② 1953~1959년, ③ 1960~1966년으로 구분된다. 소련의 영향이 가장 강한 시기는 스탈린이 생존했을 때였다. 1952년까지 평양에서는 8·15 경축대회와 연회가 열렸으며 경축대회와 연회에서 김일성이 연설했다. 스탈린이 사망한 직후인 1953년 8월 15일부터는 정주년을 제외하고는 김일성이 아니라 부수상이 보고했다. 그리고 1950년부터 1959년까지는 ‘위대한 소베트군대에 의한 조선인민의 8·15 해방’ 표제 하에 행사보도를 했지만 1960년부터는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로 표제가 바뀌었다. 그리고 1961년부터 해마다 진행하던 경축열병식이 2회로 줄었고 지방에서 진행되었다. 1966년에는 국가적인 8·15 기념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1967년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을 시작하면서부터 8·15가 국가적 명절에서 제외되었다.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성명절 관련 사·논설 발표 빈도도 이와 비례하여 줄어들었다.

발표 빈도뿐 아니라 사·논설 내용도 소련과의 관계에 따라 변화되었다. 소련은 마르크스의 여성이론에 기초하여 여성담론, 여성정책을 전개했다. 1950년대 북한의 여성정책은 소련을 모방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소련과 거의 일치했다.²⁵ 1960년대 초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여성담론과 여성정책에 점차 북한의 것이 첨

부되기 시작했다.

나. 1960년 중반 이후 여성담론 여성정책 결정자는 수령

1965~1994년 기간은 사·논설의 빈도수가 심하게 변하는데 주요 요인은 김일성과 김정일이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수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독재체제다. 북한에서 여성정책 여성담론의 주체는 수령으로, 수령이 주도하며 수령체제의 유지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치체제로 인해 여성문제에서도 수령의 영향은 절대적이며 여성은 수령의 노선 집행자일 뿐이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난 다음 북한은 외면으로는 일관하게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 정책을 표방했다. 그러나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의 여성정책은 확연히 차이난다. 김일성 시기에는 여성문제가 중시되어 당과 맞먹는 권력으로까지 부상했지만, 김정일 시기에는 여성문제가 외면되고 여맹의 지위가 하락했다.

김일성 시기 여맹의 권력이 부상한 것은 김일성의 지지에 힘입은 것이다. 김일성은 부인인 김성애가 여맹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성애는 1965년 11월 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1970년 위원장직을 맡았다. 김일성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여맹관련 행사에 참가한 횟수는 여맹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회단체인 직맹에 참가한 횟수보다 더 많다. 김일성이 여맹 관련 회의에 많이 참가한 시기는 김성애가 여맹부위원장으로 등장했을 때와 그가 여맹 위원장으로 활동한 시기다.

²⁵ 1955년에 발표한 문헌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경험을 배우는데 형식만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쁘라우다’지에서 ‘우리 조국의 하루’라고 제목을 달면 우리 《로동신문》도 《우리 조국의 하루》라고 제목을 달니다. 그런것까지 따를 필요야 어디 있습니까. 의복입는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여성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조선의복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다녀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녀맹일군들에게 우리 여성들은 될수 있는대로 조선의복을 입도록 하자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예로 볼 때 당시 북한의 여성 관련 사·논설의 논조도 소련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77.

<표 4> 김일성이 참가한 회의 (1965~1973)

근로단체	김일성이 참가한 회의	횟수
여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여성동맹 제3차대회('65.9.1.~4. 중 1, 2일에 참가) • 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 20주년 기념보고대회('65.11.17.) • 조선민주여성동맹창립 25돌 기념보고회('70.11.17.) • 국제부녀절 기념 60돌 기념보고회('70.3.8.) • 조선민주여성동맹 제4차대회('71.10.5.~10.) •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25돌 기념보고회('71.7.30.) 	6
직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직업총동맹 제 4차대회('68.12.16.~19.) • 조선직업총동맹 창립 25돌 기념보고회('70.11.30.) • 조선직업총동맹 제 5차대회('71.12.10.~15.) 	3
사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단창립 20주년 기념 전국 연합단체 대회('66.6.5.) •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제 6차대회('71.6.21.~28.) •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창립 25돌기념 보고회('71.2.5.) 	3

출처: 『조선중앙년감』, 1966~197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그러나 김정일이 올라서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감소했다. 김정일은 1974년 6월 평양시 당 전원회의 이후 김성애와 이복동생들을 곁가지로 규정하고 권력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전반기 여성명절 사·논설 발표 수가 급감하고 사·논설 내용에 여맹조직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김정일이 여맹을 얼마나 외면하고 경계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당시 여맹 중앙위원회는 김성애로 인해 집중 검열을 받았고 여맹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직위 해제, 출당 조치 이후 지방으로 추방을 당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한 당 제6차대회 이후 여맹을 축소했다. 여맹 5차 대회(1983년 6월)에서 여맹의 규약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종전 18~55세의 모든 여성이 가입하던 여맹이 가두 여성과 편의봉사부문 여성만 망라되게 되었다.²⁶ 300만 맹원이 120만으로 격감하고 여맹의 위상은 급속히 하락했다. 그러나 김일성이 생존해있었기 때문에 김성애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김성애는 1970년대 후반기부터는 여맹 사업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특히 1980년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나, 김일성 사망 전까지 명목상 여맹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요 행사에 참가했다. 김정일은 여맹을 제한하고 배제했으며 이에 따라 여맹의 위상은 하락하고 여성 관련 사업이 축소되었다.

²⁶ 필자가 북한에 있을 때 목격한 것임.

수령체제는 봉건적 왕권체제와 유사성을 가지므로 가부장적이다. 수령은 정치 체제의 최고 지도자일 뿐 아니라 남성의 대표자이다. 수령의 여성관은 그의 개인적 성장 과정과 사회적 실천과정에 형성된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수령이라는 지위로 해서 공적인 것으로 정당화되고 정책으로 확대된다.

김일성은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일성은 여성이 직장에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낙후해진다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었다. 김일성은 초 시기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로부터 후퇴하기는 했지만, 소련의 영향과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여 여성문제에 일정한 관심을 돌렸다. 여성문제에 대한 김일성의 관심은 부인인 김성애가 여맹에 관여하면서 더 높아졌다.

사·논설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에서 현실에서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김일성 시기에 나왔다. 김일성은 소련을 모방한 것이기는 했지만 해방 직후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모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물리적 대책을 수립, 1970년대 전반기 여성들의 가정일의 부담 대책으로 3대기술혁명 과업 제시 등 정책을 내놓고 그 집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여성정책은 후퇴했다. 물론 1970년 후반기와 1980년대에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요구했고 탁아유치원을 계속 운영했지만, 이는 이전 정책의 지속일 뿐이고 체제수호에 여성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나섰다.

권력투쟁이 끝난 이후 김정일은 1995년 3월 8일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3·8절을 맞으며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여성문제를 별로 취급하지 않은 간부들을 편협하며 감정이 없는 목적과 같다고 비난하면서 여성들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여성을 혁명의 꽃, 나라의 꽃, 사회의 꽃으로 내세우고 노래도 만들게 했다.²⁷ 이에 따라 여성명절 관련 사설이 늘고 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어려운 사회경제적 난관극복에 여성들을 이용하고 여맹조직을 다시 부활시켜 여성을 통제하고 동원하고자 했을 뿐이다. 이는 나라 경제가 파산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김정일의 여성관도 적지 않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김정일은 마르크스의 여성해방론의 영향을 김일성보다는 적게

²⁷ 김정일,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 있는 역량이다,” 『김정일선집』, 1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25~26.

받았을 것이다. 김정일은 특히 일찍이 사망한 어머니를 무척 그리워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여성은 어머니였고 가정에서의 여성을 중시했다. 이러한 개인적 환경에서 형성된 그의 여성관은 최은희에게 성혜림을 소개하며 했다는 말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편네란 그저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잘하면 되지요”에 드러난다. 그는 생전에 아내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회활동에 참가시키지 않았다. 김정일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고 순종하는 여성을 요구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많은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1990년 가족법이 제정, 1993년 개정되었으며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이전과 달리 많은 법이 개정 신설된 것은 사상교양에 기초한 조직적 통제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시도했다.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압력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제정된 측면이 강하다. 실질적인 법조문을 보면 당시까지 북한 정부가 취해 온 조치를 일반화 했을 뿐 실질적인 도움으로 되는 문항은 크게 없다. 그것이 실제로 여성의 지위 상승에 도움으로 되는 법이라면 북한의 선전·선동정책의 원칙상 사·논설에서 강조하고 주민들에게 적극 선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 관련 사설에서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 관련법이 북한 여성들에게 배려나 은덕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여성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형식적인 대책이라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북한의 여성담론, 여성정책 변화 전망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부인인 이설주가 신문·방송에 공개되었다. 이설주의 서구적인 패션, 김정은과 손을 잡고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 등은 오랫동안 지도자의 부인을 보지 못하던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권력무대에 등장한 직후 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어머니날을 제정했으며 소년단대회에 참가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등 행보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서구적 관점을 가진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여성정책에서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주었다.

그러나 북한 사설은 이와 다르게 말하고 있다. 김정일 등장 이후 사·논설에서

새롭게 보이는 문구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논설에서는 2010년부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에게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사회주의생활문화를 꽃피워나가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응당한 본분이다.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한다. 자녀들의 본보기 생활의 거울이 되고 훌륭한 교양자가 되며 가정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감으로써 그 어느 가정에서나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의 노래가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²⁸

노동신문 사설에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의 인용은 지도자의 어록이거나 적어도 그가 인허한 단어인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장은 김정은의 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그의 여성관을 집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관의 형성에 가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정은의 여성관은 그의 성장배경으로 보아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은이 등장한 후 여성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어머니의 날 제정, 평양산원에 암연구센터 건립이었다는 것도 이를 확인해준다. 김정은의 어머니는 사회생활을 한 여성이 아니라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돌본 여성이었다. 스위스 유학생활경험 때문에 김정은이 여성문제에 대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에도 여성을 위해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의 시장화가 진척되면서 여성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된 만큼,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 쇼는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Ⅲ.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여성담론 여성정책의 변화를 노동신문의 여성 관련 사·논설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그에 의하면 북한의 여성정책은 마르크스의 여성해방론에 근거하여 형성되었으며, 초기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담론, 여성정책은 소련의 영향에서 탈피하면서 점차 퇴보하였는데 이에 가장 큰

²⁸ 『로동신문』, 2012년 7월 30일 사설.

영향을 준 것은 수령이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여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적인 여성담론 여성정책은 지도자의 여성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북한 체제가 변화하여 여성이 자기 문제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 한 북한의 여성문제 해결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북한의 당과 국가의 공식적인 여성담론을 논한 것으로 실제 북한여성들 속에 형성된 여성담론과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접수: 4월 26일 ■ 심사: 5월 12일 ■ 채택: 6월 8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정일. “‘로동신문’ 기사를 당보의 특성에 맞게 잘 쓸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로동신문사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 있는 력량이다.” 『김정일선집』. 1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임순희. 『「조선여성」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2. 논문

- 김병로 외. “북한의 여성교육과 여성상: 「교과서」와 「조선여성」에 나타난 여성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 2000. 12.
-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1950년 이전과 1979년 이후 조선여성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2005.
- 김석향·권혜진.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 당국의 여성담론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2009. 12.

- 김선희. “조선여성’지에 나타난 북한여성의 성역할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5.02.
- 김인영. “북한 여성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교과서> 및 <조선여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97.08.
- 문장순. “김정일 시대 여성인식: 1995년~2007년까지 『로동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제4호, 2007.12.
- 박영자. “북한의 근대 여성주체의 형성, 1945~47: 『김일성저작집』과 『조선여성』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6집, 2004.06.
- 이미경. “이상적인 여성상을 통해서 본 북한의 여성정책: 『조선여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8권 제2호, 2004.
-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통권17호, 2007.06.
- 장하영·박경규.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 국가 건설기부터 수령제 성립기까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 2005.08.
-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조선여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4.08.

3. 기타자료

『로동신문』. 1950~2014.

Abstract

Examining Changes in Discourse and Policy for North Korean Woman in the Rodong Sinmun

In-Ae Hyun

The Rodong Sinmun's editorial is an effective material to explore the North Korean leadership's official female discourse and women policy at any given moment. According to analyses of the 'Rodong Sinmun's editorial on International Women's Day from 1950 until present day,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discourse on women was initially one orientated towards women stepping out of the confinement of the home and working in the social sphere society. But the direction has gradually changed to one emphasizing the traditional model woman. The authorities' policies for women originally ensured national conditions enabling the entry of women in public affairs and the promulgation of gender equality; they developed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and even the production of home appliances to liberate women from the burden of household work. But since the mid-1970s, while some of these policies were maintained, others were drawn back. The primary cause for a retreat in North Korea's women policy was a political one; since the 1950s to the first half of the 1960s, North Korea was under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bu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ystem, the leader's standpoint towards women was subsequently translated into state policy.

Key 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Women, Women Policy, Female Discourse, Rodong Sinmun

